#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대처전략 및 가족건강도

경상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최 정 혜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급격한 사회변화의 영향으로 가족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가족형태의 변화로서 핵가족의 급격한 증가인데 이 핵가족이 또다시 분리되는 형태마저 나타나고 있다. 즉 핵가족 내 비 동거 가족의 출현으로, 일반적 형태는 남편이 취업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주말에만 가족을 만나는 유형으로서 일명 '기러기 아빠'라는 시류어(時流語)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기혼 여성의 전문직 취업이 증가하면서, 아내가 남편과 떨어져 주말에만 가족을 만나는 이른바 맞벌이 주말부부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구조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산업화가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가족가치 및 구조의 변화, 가족 기능의 변화 등을 유도하면서 비동거 가족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생활양식을 창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김은경, 1999). 또한 취업 때문에 부부가 비동거를 택하는 외벌이 또는 맞벌이 주말가족이 출현함으로써 가족을 정의할 때 전통적으로 중요시 여겨지던 개념 중의 하나인 동거의 개념마저 그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다. 이는 사회가 변하면서 개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에 흡수되고, 또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는 점과 연관되어, 가족은 핵가족이라는 일정한 표준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형태가 불가피해진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가족의 개념이 일정한 유형을 전제로 유일한 가치를 추구하기 보다 다양한 유형을 수용하면서 생활의 유용성에 관심을 두게 되는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공세권, 1998).

맞벌이 주말가족이 탄생하게 된 기본 배경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지방산업의 육성 발전으로 인해 지역간 노동력 이동이 빈번한 것도 한 요인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Gerstel & Gross, 1984).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경쟁이 상존하는 시장상황에서 기업의 끊임없는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하고 그 결과로 실업, 물가상승, 취업기회 축소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포함하게 되어 노동시장은 더욱 경직되고 부부는 직장을 같은 장소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는 부부가 직장을 위해서라면 별거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의식 변화를 유도해왔고, 이에 따른 맞벌이 주말부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정책 관련 자료(장성자, 2001)에 의하면 현재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7.4%로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위한 사회적 지원기반을 마련하는데 여성부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이런 사회적 추세와 관련하여 앞으로 여성의 취업은 증가할 것이며 주말부부 현상 역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주말가족 형성을 촉진하는 개인적 요인으로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 증대와 자녀교육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맞벌이 주말가족은 특성상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아내의 직업적 성취와 자아실현이 중시되는 가족형태이며, 또한 자녀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행정 교육기관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 주로 아내가 머무르고 남편이 통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김태현 · 박숙자, 1992).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감안할 때 자녀교육으로 인한 주말가족 역시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맞벌이 주말가족의 경우 아내의 역할이 전통적인 결혼에서의 아내역할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전통적인 아내역할을 요구하므로 이념과 실제의 괴리로 인한 다양한 갈등을 안고 있으며(Gross, 1980), 이는 곧바로 부부간의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주말부부는 맞벌이이든 외벌이이든 모두 주말동거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가족생활 관련 스트레스가 많으리라 예측된다. 따라서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문제는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규명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대처전략 연구는 주말부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한편 최근 가족학 연구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건강 가족적 관점(strong family perspective)은 가족의 병리적,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관점으로, 오늘날의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는 개방체계로서 어느 한 측면의 강화만으로는 전체 체계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건강한 가족체계는 개별 가족원의 가치관 및 노력 여하, 그 가족이 속한 확대 친족체계나 사회체계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Olson & Defrain, 1994).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역기능적인 가족에만 초점을 두어왔다는 자성과 함께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가족을 조망하고자 하는 관심이 대두되면서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가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최근에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들(유영주, 2001; 최선희, 2001; 허봉렬, 1998)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문제와 맞물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이 증대될 부분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최근에 사회변화와 함께 급격하게 부상되고 있는 주말부부의 문제와 함께 주말가족의 가족건강성 정도는 과연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 역시 현대사회의 변화된 생활양식의 특성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는 주말부부의 가족건강도의 실태를 파악하는 유용한 기초자료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족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모색으로서 가족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교육 및 상담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연구 내용과 연구모형

본 연구 내용인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와 대처전략 그리고 가족 건강성 정도를 규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이며, 부부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은 어떠하며, 부부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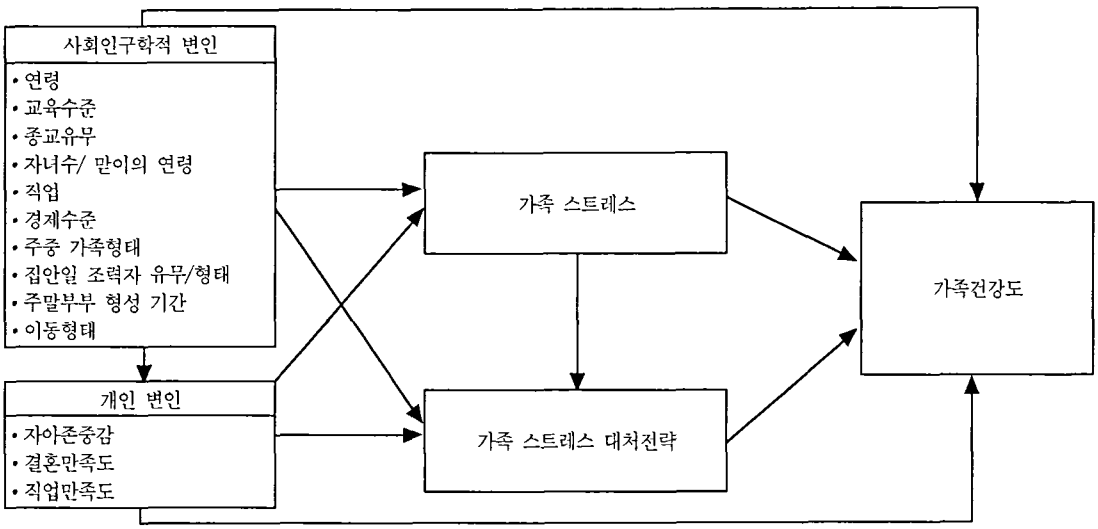
<연구문제 3>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 및 대처전략은 사회인구학적변인, 개인변인에 따라 어떠하며, 부부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주말부부의 가족 건강성 정도는 어떠하며, 부부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주말부부의 가족 건강성은 사회인구학적변인, 개인변인에 따라 어떠한가?

<연구문제 6>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및 대처전략에 따른 가족 건강성 정도는 어떠한가?

이상과 같은 연구를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연구 모형

## II. 이론적 배경

### 1.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개념 및 모델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자극모델),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반응모델), 상호관계로서의 스트레스(상호작용모델) 등으로 정의되기도 한다(Lazarus, 1984). 즉 스트레스는 하나의 단일 차원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원인 또는 자극으로서의 개념, 상호작용과정 또는 매개체로서의 개념 등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가족스트레스 연구는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가족원 중 어느 한 사람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다른 가족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족전체의 문제가 된다고 보는 체계론적 관점을 택하고 있다. 또한 가족스트레스란 가족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변화 등 가족생활사건과 관련되는(Lavee & Olson, 1991)것으로 대부분 McCubbin의 FILE(Family Inventory of Event and Change)에 근거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그 하위영역은 가족내의 갈등, 부부생활의 긴장, 임신과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긴장과 부담, 직업상 가족의 변화, 질병과 가족의 간호, 상실, 전환, 규칙위반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란 주말부부가 가족스트레스원에 의하여 발생된 상황에 대해 느끼는 긴장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요인과 정도를 파악하고 주말부부가 어떤 자원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분석하여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를 규명하고자 한다.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Hill의 ABCX 모델에 기초한다(Burr, 1983). 이 모델은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A요소는 스트레스원, B요소는 가족의 위기 대처자원, C요소는 사건에 대한 가족의 주관적 지각, 그리고 X요소는 위기로서 설명한다. 즉 스트레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A), 가족들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의 여부(B), 그리고 이 사건을 가족이 얼마나 심각한 것으로 지각하는가에 따라서(C), 가족의 위기(X)를 예방할 수도 있고 위기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이 모델에서 중요한 개념은 A, B, C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 하여 X요소의 발생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그 이후 스트레스 연구에서 성공적 대처에 관심이 기울어지면서 Burr(1983)는 Hill의 ABCX 모델에 취약성과 재생력이라는 개념을 첨가하여 수정모델을 제시하였다. 취약성은 스트레서 사건이 가족체계에 위기를 가져오는 것을 막는 가족의 능력에 변수로 작용하며, 재생력은 가족이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에 변수로 작용하여 이 두 가지 변수가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매개변수가 된

다. 가족스트레스 연구에서 재생력이 시사하는 바는 가족이 스트레스인의 자극에 견디어내는 강도가 가족마다 차이가 있을 거라는 점이다. 즉 같은 스트레스인에 대해서도 다른 반응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성공적인 문제해결과 대처를 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가족들이 있게 된다.

한편 스트레스가 곧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가족스트레스 이론에 반영되면서(Boss, 1987 & Burr, Klein, 1994: 재인용, 최연실, 1996),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와 적응을 설명하는 이론 틀로 확실히 자리잡게 된 것이 바로 Double ABCX 모델이다. McCubbin(1983)등은 Hill의 연구를 계승해서 Double ABCX 모델을 설정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의 면을 중시하여 위기예방과 적응의 일부로서의 자원과 위기를 조절하는 수단으로서의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자원과 대처는 어떤 가족이 위기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가를 예견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주말부부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 2. 주말부부의 스트레스인지와 관련 변인

가족스트레스 연구는 사회적 관심과 흥미를 끌게된 사건과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문제들의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왔는데, 그러한 사회적 관심분야 중의 하나가 기혼여성이 직장생활을 병행함으로써 야기되는 역할갈등에 관한 것이다((McCubbin et al., 1980; Rapoport & Rapoport, 1978; Skinner, 1983). 특히 자녀가 있는 취업주부의 경우 배우자, 직업인, 부모라는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역할들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역할 갈등은 필연적이 된다(전영자, 1997).

역할갈등이란 일반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둘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여 해결에 곤란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역할갈등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스트레스원으로 보았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역할갈등의 영역을 부부역할, 가사관련 역할, 부모역할, 성인자녀역할의 4영역으로 나누어 이러한 중다 역할 요구가 상호 병행될 수 없거나 역할기대와 수행간의 차이로 인해 느끼게 되는 갈등을 스트레스로 정의하였다. 기혼여성이 가정 내 역할뿐 아니라 가정 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종종 경쟁적인 역할요구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Beutell & Greenhaus, 1983) 특히 전문직 취업주부는 일반 취업주부보다 이런 스트레스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주말부부의 경우 직장 때문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동거하지 못하고 주말에만 만나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부부보다 더 가족스트레스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점은 선행연구(이기숙, 1999)에서도 언급 된 바 있다.

최근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주말부부에 관한 연구는 극소수(김은경, 1994; 옥경희, 1994; 이기숙, 1994)이고, 그것도 거의 맞벌이 주말부부의 역할갈등에 관한 한정된 연구이므로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맞벌이 주말부부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의 관련 변인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취업여성에 관한 선행연구(구혜령, 1991; 김경신. 김오남, 1996; 김은경, 1999; 전영자, 1997)에 의하면 주부의 취업이 가족 내의 여성 역할을 변화시키지는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규범변화나 여성 스스로의 의식구조의 변화가 사회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므로 취업여성들은 가정내의 역할 때문에 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자신의 직업을 남편의 직업이나 가족에 종속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역할 긴장과 직업스트레스가 가중된다 하였다. 이런 경향은 맞벌이 주말부부 역시 같은 경향이거나 아니면 더 심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 연구에서(전영자, 1997) 전문직 취업 주부들은 부모역할, 직업역할, 부부역할 순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취업주부의 남편들 역시 자녀양육과 가사 일에서 다른 영역보다 높은 역할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김경신 · 김오남, 1996; 서혜영 · 이숙현, 1999) 이 영역에서의 스트레스를 시사하고 있다.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사조력자의 유무, 남편의 지지, 직종, 근무시간, 취업동기, 직업만족도, 부인의 직업직위, 성역할 태도, 근무시간의 융통성 사회적인 지원 등으로 나타

났다(구혜령, 1991; 김은경, 1999; 정문자 · 이미리, 2000; 허영숙, 1993). 또한 맞벌이부부 남편의 역할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근무시간의 융통성, 부인의 요구도, 가족역할 수행을 들고 있으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서 소득, 부부의 소득차이, 막내자녀 연령, 남성의 성역할 태도 등을 들고 있다(김양호 · 김태현, 1998). 그리고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인 학력이 고졸 이하일 때, 부부간에 일하는 시간의 불공평을 높게 인지할 때, 경제적 이유로 취업했을 때, 부인소득 비율이 더 높은 경우에 역할갈등을 많이 느꼈으며, 남편이 부인취업에 비협조적일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역할갈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최규련외, 1995)도 있다. 맞벌이 주말부부와 맞벌이 동거부부를 비교한 Bunker와 그의 동료들(1992)에 의하면 맞벌이 주말부부가 동거부부에 비해 역할 갈등을 훨씬 적게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김은경(1999)은 맞벌이 주말가족과 맞벌이 동거가족의 역할갈등이 모두 중간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밝혀, 국내외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라에 따른 차이인지 아닌지는 후속연구들을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한편 심리적 개인변인으로서의 자아존중감은 취업주부의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쓰이고 있는데(Schwartzberg & Dytell, 1988), 전영자의 연구(1997)에서도 역할갈등과 자아존중감과의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밝힌바 있다. 즉 부부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며, 부모역할 갈등이 높을 때에도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선행연구(김은경, 1999)에서 맞벌이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반면, Bunker 등(1992)의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직업만족도 역시 취업부부들에게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는데, Kinnunen 등(1996)의 연구에서 직업 스트레스는 가족생활에서의 부정적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nett(1994)는 직업 스트레스가 가족관계에서의 긴장에 영향을 미치고 직업 만족과 부부관계 만족은 서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Tenbrunsel 등(1995)은 직업과 가족생활간 관계 연구에서 남성은 상호적인 관계가, 여성은 가족이 직업생활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형실(2001)은 직업생활 스트레스가 기혼여성과 남성의 심리적 복지와 관련된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이런 관련 연구들을 볼 때 심리적 개인변인인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 등이 가족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3. 주말부부의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관련 변인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일반적인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첫째,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며, 둘째, 가족을 보호하는 가족체계자원(결속력, 적응, 조직력 등)을 유지 강화시키며, 셋째, 스트레서 사건과 그에 따른 곤경을 감소 또는 제거하며, 넷째,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한다(Olson et al., 1983).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내적 전략과 외적 전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적 전략에는 스트레서 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도전으로 정의하는 재구조화 전략과 스트레서를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될 어떤 것으로 정의하는 수동적 평가 전략이 있다. 외적 전략에는 확대가족원, 친구, 이웃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체계 획득 전략, 정신적 지원 찾기 전략,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발견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 가족원을 동원하는 전략 등이 포함된다. 취업부부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대처행동은 타협이며, 특히 주부는 중다역할 요구가 있는 경우 직업목적과 타협하게 된다고 한다(Heckman, et al., 1977).

대처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송말희(1990)는 합리화와 부정, 회피와 억압, 외부의 도움요청, 적극적 행동으로 구분하였으며, 최규련(1994)은 외부 도움 요청, 신앙에 의지, 이성적 대처, 감정표출, 행동표출, 회피로 분류하였다. 전영자(1997)는 역할감소,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 인지재구조화, 가족체계 재구조화, 역할간 상황수정 등의 6가지를 사용하였으며, 국내 연구 대부분은 남편이 주로 이성적이거나

행동표출 유형을 취하고 부인은 방어적 갈등 대처 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자, 1991; 송말희, 1990; 최규련, 1994; 최혜경 · 노치영, 1994)고 보고하였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갈등 대처행동과 사회인구학적 배경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남편과 부인 모두 연령, 학력, 직업 그리고 가족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갈등대처 방법으로는 이성적 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행동 표출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인은 외부도움 요청과 신앙에 의지한다는 응답이 남편보다 높고, 행동표출은 남편이 부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다(이현주, 1997). 또한 학력, 직업, 소득 등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사회관계 망의 사회 심리적 자원이 부족하여 문제상황에 적극적, 효율적인 행동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주, 1997; 최혜경 · 노치영, 1994). 한편 갈등에 능동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처할수록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이현주, 1997; Kurdek, 1995), 취업부부의 스트레스와 대처간의 관계에서 분명한 것은 스트레스 대처 노력이 중다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완전한 대처방안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McCubbin & Patterson, 1983). 이런 맥락을 감안하면서 주말부부의 스트레스 대처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심리적 개인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과의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적 대처방안이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전영자, 1997; Crossman, 1984)가 있다.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 역시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여 대처전략에 있어서도 심리적 개인변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4. 가족 건강성과 관련변인

1) 건강가족

건강가족의 연구는 Otto(1962)가 건강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원간 상호작용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여러 학자들에 따라 개념도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가족치료학자들은 가족을 체계로 간주하면서 체계가 병리적이지 않고 기능적으로 작용할 때를 건강가족이라고 하며, 가족학자들은 가족관계적인 측면에서 상호관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때를 건강가족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건강가족을 논함에 있어 가족을 단위로 하여 접근하면서 사회심리 ·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정의된 건강가족에 대한 몇몇 개념을 살펴보면, 허봉렬(1996)은 가족의 전체적인 체계가 가족의 기본적인 목표를 잘 달성하도록 기능이 수행되고 있을 때를 건강가족이라고 함으로써 체계의 기능성을 강조한 바 있다. 어은주(1997)는 건강한 가족을 가족원 상호간에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가족의 공동체, 정서적, 도덕적 관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가족이라고 정의했으며, 유영주(2000)는 건강가족을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올바르고 적합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가족으로 정의하였다. 이들 개념들은 공통적으로 집단 및 체계로서의 관계유지에 역점을 둔다고 볼 수 있으며, 가족의 건강성 정도에 따라 가족 집단을 분류하여 접근하는 개념도 가능하다고 보았다(양순미 · 유영주 · 정현숙,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주말부부의 가족 건강성 정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2) 건강 가족 관련 변인

가족 건강성과 관련된 일부 변인들을 살펴보면 크게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형태, 주부의 취업여부, 종교, 가족원의 신체적적 정신적 건강 등을 들고 있으며, 심리적 변인으로는 결혼만족도, 부부문제 심각도,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우울, 자아정체감 등을 들고 있다(유영주, 2000). 즉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개인의 안정 및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Voydanoff, 1991), 반대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이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어(Byles, Byrne, Offord, 1988) 가족의 경제적 요인이 가족의 건강성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형태에 따른 가족 건강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어은주, 1995), Brigman 등(1986)의 연구에서는 확대가족의 가족 건강성이 핵가족보다 높게 나타나 확대가족이 가족 건강성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취업주부의 가족 건강성에 대한 연구는 놉(Knaub, 1985)의 전문직 여성대상 연구에서, 전문직 여성들의 가족 건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되는 결과의 연구(Brigman et al., 1986)도 있다. 또한 종교에 있어서는 건강한 가족에 대한 전국적인 연구에서 스틴넷 등(Stinnet et al., 1979)은 종교가 가족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행복, 성공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다른 선행연구(어은주, 1995)도 종교유무에 따른 가족의 건강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심리적 변인인 결혼만족도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가족의 건강성과 관련되어 그 두 변인간에는 선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어은주 · 유영주 1997; Farrell & Barnes, 1993). 즉 결혼만족이 높은 가족이 가족의 건강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 때 부부간의 만족도가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정옥, 1995; 최규련, 1994). 또한 자아존중감은 가족 건강성과 정적인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어은주 · 유영주, 1997; 최규련 1994), 가족응집성 차원 역시 가족원의 자아존중감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Cohen & Will, 1985; Goldstein & Rosenbaum, 1985; Farrell & Barnes, 1993, 재인용 유영주, 2000) 가족의 건강성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직업만족도는 아직까지 가족의 건강성과 연결시킨 연구는 없지만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개인변인으로 넣어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대처전략 및 가족건강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는 일반 문항과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 척도, 대처전략 척도, 가족건강도 척도, 결혼만족도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직업만족도 척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내용 및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가족 스트레스 척도는 전영자(1997)의 척도를 이용하여 부부역할 스트레스, 부모역할 스트레스 문항을 만들고,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원으로 나타난 가사에 관련된 스트레스, 성인자녀역할 스트레스 등 2개 영역을 추가하여 4개 영역, 총 20문항의 가족 스트레스 척도를 만들었다. 예비조사 후, 내적 일관성이 낮은 2문항을 제외하고 총 18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정말 그렇다'에 5점까지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92로 나타났다.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척도는 전영자(1997), 이현주(1997)의 척도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21문항을 만들었다. 예비조사를 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5요인(인지 재구조화, 취미활동, 역할분담, 관리활동, 정서적 지원)으로 나타난 문항만 선택하여 총 16문항으로 척도를 재구성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가족 스트레스 대처방안으로 사용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정말 그렇다'에 5점까지 점수를 주어 각 요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83으로 나타났다.

가족 건강도 척도는 어은주 · 유영주(1995)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34문항으로 구성된 가족 건강성 척도를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4영역 23문항으로 수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내적일관

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3문항을 제거하고 총 20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가족관계에 대한 응답정도에 따라 '결코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항상 그렇다'에 5점까지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96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 척도는 슘(Schumm)과 그의 동료들이 제작한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1980)을 이용하였다. KMSS의 타당도는 여러 연구(김득성, 1989; 어은주 · 유영주, 1997)에서 입증된 바 있다. 본 척도는 개인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결혼관계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로서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묻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매우 불만족'의 1점에서 '매우 만족'의 7점까지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96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관심을 말하는데(Gecas & Burke, 1995; Rosenberg, 1979), 본 조사에서는 Rogenberg(1972)와 Neal Krause & Tran(1989)의 척도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비조사에서 6문항을 사용한 후 내적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2 문항을 제거하고 총 4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정말 그렇다'에 5점을 주는 리커트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전체 4문항 중에서, 2문항은 긍정적인 문항을 사용하고 2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통계처리 시 역산을 하여 점수를 내었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74로 나타났다.

직업만족도 척도는 직업 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서 조은숙(1997)의 척도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주관적인 만족도 척도 3문항을 만들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을 주는 리커트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95로 나타났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직업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주거를 두고 일주일에 3일 이상을 떨어져서 지내는 전문직, 관리직 그리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주말부부이다. 본 연구는 주말부부가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주말부부로 생활한 응답자만을 포함시켰으며, 맞벌이 주말부부뿐만 아니라 외벌이 주말부부도 포함시켰다. 예비조사는 2002년 3월 11일부터 4월 8일까지 4주 동안 주말부부 30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한 후, 수정한 설문지로 2002년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유의표집과 눈덩이 표집을 통해 구한 주말부부 200쌍에게 배포되었으며, 본 연구에는 134쌍 총 268명의 자료가 최종분석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신뢰도, 요인분석, 평균, t-test, 일원변량분석, Duncan Multiple Range Test 분석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

###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부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40대로 나타났는데, 남편은 40대가, 아내는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학졸업이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졸업도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부부의 높은 학력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연구 특성상 조사대상이 전문직과 교사에 치중된 탓으로 보인다. 종교는 가지지 않은 사람과 가진 사람이 거의 반반 비율이었으나 종교가 없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다. 또한 아내 쪽이 남편보다 종교를 가지는 경향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주말부부의 자녀수는 2명이 가장 많았으며, 맏이의 연령

은 7세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교사 및 연구직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부부가 같은 경향이었다. 다만 아내 쪽에서는 전업주부가 두 번째 순위로 나타나 주말부부중 외벌이의 비율이 많음을 보였다. 가정의 월수입 정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중 가족형태를 보면 혼자 사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높고 다음순위로는 자녀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혼자'가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아내의 경우는 '자녀와'사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부가 만나는 주기는 '매주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은 '남편'이 대부분이고, '아내'가 이동하는 것은 소수로 나타나서, 주말부부의 특징으로 대부분 남편이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소 집안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1/3정도로 나타났으며 아내가 남편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내가 직장과 자녀교육을 함께 맡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된다.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으로는 '시부모'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친정부모'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내만 따로 보았을 때는 '시부모' 보다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 직장생활을 하는 아내가 친정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은 1-2년이 가장 많았으며, 결혼지속년수는 10년-14년 사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구 분 | 남편(134) | 아내(134) | 전체(268) | 구 분 | 남편(134) | 아내(134) | 전체(268) |
|---|---|---|---|---|---|---|---|
| 연령 20대 | 4( 3.0) | 7( 5.2) | 11(4.1) | 주중 혼자 | 116(86.6) | 29(21.6) | 145(54.1) |
| 30대 | 48(35.8) | 65(48.5) | 113(42.1) | 가족 자녀와 | 10( 7.5) | 78(58.2) | 88(32.9) |
| 40대 | 61(45.5) | 45(33.6) | 106(39.6) | 형태 자녀 및 부모 | 5( 3.7) | 13( 9.7) | 18( 6.7) |
| 50대 | 21(15.7) | 17(12.7) | 38(14.2) | 자녀와 친정부모 | | 14(10.4) | 14( 5.2) |
| | | | | 기타 | 3( 2.2) | | 3( 1.1) |
| 교육 고졸 | 5( 3.7) | 21(15.7) | 26( 9.7) | 부부가 매주말 | 100(74.6) | 100(74.6) | 200(74.6) |
| 수준 전문대졸 | 8( 6.0) | 18(13.4) | 26( 9.7) | 만나는 2주마다 | 27(20.1) | 27(20.1) | 54(20.2) |
| 대학졸 | 74(55.2) | 70(52.2) | 144(53.7) | 기간 3주마다 | 7( 5.2) | 7( 5.2) | 14( 5.2) |
| 대학원졸 | 47(35.1) | 25(18.7) | 72(26.9) | | | | |
| 종교 없음 | 73(54.5) | 66(49.3) | 139(51.9) | 평소 집안일 없다 | 101(75.4) | 90(67.2) | 191(71.3) |
| 유무 있음 | 61(45.5) | 68(50.7) | 129(48.1) | 도우는 사람 있다 | 33(24.6) | 44(32.8) | 77(28.7) |
| 자녀수 1명 | 38(28.4) | 38(28.4) | 76(28.4) | 도우는 고용인 | 6(18.2) | 8(18.2) | 14(18.2) |
| 2명 | 84(62.7) | 84(62.7) | 168(62.6) | 사람 부모 | 20(60.6) | 16(36.4) | 36(46.8) |
| 3명 | 12( 9.0) | 12( 9.0) | 24( 9.0) | 처부모 | 5(15.1) | 18(40.9) | 23(29.8) |
| | | | | 기타 | 2( 6.1) | 2( 4.5) | 4( 5.2) |
| 맏이 7세이하 | 38(28.4) | 38(28.4) | 76(28.4) | 주말에 남편 | 106(79.1) | 106(79.1) | 212(79.1) |
| 연령 초등생 | 35(26.1) | 35(26.1) | 70(26.1) | 누가 아내 | 11( 8.2) | 11( 8.2) | 22( 8.2) |
| 중·고생 | 34(25.4) | 34(25.4) | 68(25.4) | 이동 양쪽 모두 | 17(12.7) | 17(12.7) | 34(12.7) |
| 대학생이상 | 27(20.1) | 27(20.1) | 54(20.1) | 하는가 | | | |
| 직업 교수·전문직 | 24(17.9) | 11( 8.2) | 35(13.1) | 1년 미만 | 30(22.4) | 30(22.4) | 60(22.4) |
| 교사·연구직 | 52(38.8) | 65(48.5) | 117(43.7) | 주말 1-2년 | 34(25.4) | 34(25.4) | 68(25.4) |
| 관리직(과장이상) | 31(23.1) | | 31(11.6) | 부부로 3-5년 | 31(23.1) | 31(23.1) | 62(23.1) |
| 사무직 | 27(20.1) | 18(13.4) | 45(16.7) | 산 6-9년 | 27(20.1) | 27(20.1) | 54(20.1) |
| 주부 | | 40(29.9) | 40(14.9) | 기간 10년 이상 | 12( 9.0) | 12( 9.0) | 24( 9.0) |
| 가정 200만원 미만 | 7( 5.2) | 7( 5.2) | 14( 5.2) | 5년 이하 | 24(17.9) | 24(17.9) | 48(17.9) |
| 월수입 200-300만원 미만 | 35(26.1) | 35(26.1) | 70(26.1) | 결혼 6-9년 | 23(17.2) | 23(17.2) | 46(17.2) |
| 정도 300-400만원 미만 | 41(30.6) | 41(30.6) | 82(30.6) | 지속 10-14년 | 34(25.4) | 34(25.4) | 68(25.4) |
| 400-500만원 미만 | 30(22.4) | 30(22.4) | 60(22.4) | 년수 15-19년 | 26(19.4) | 26(19.4) | 52(19.4) |
| 500만원 이상 | 21(15.7) | 21(15.7) | 42(15.7) | 20년 이상 | 27(20.1) | 27(20.1) | 54(20.1) |

## Ⅳ. 연구결과 및 해석

### 1.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 정도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 정도는 5점 척도에 평균 2.98로서 중간점수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가 조금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결과는 부부의 문제를 드러내기 꺼려하는,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을 감안할 때 스트레스의 정도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본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이기숙, 1994; Gross, 1980) 주말부부의 갈등 가능성을 지지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부부간 차이를 보면 남편의 가족 스트레스(M=3.02)가 아내(M=2.93)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부가 비슷한 정도의 가족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자녀역할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는 가족 스트레스 영역 중에서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주말가족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단점이 자녀양육이라고 밝힌 선행연구(이기숙, 1999)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한편 부모역할 스트레스에 있어서 부부간 차이를 보면 남편(M=3.26)이 아내(M=3.13)보다 조금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결과는 부인들의 부모역할 갈등이 남편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이옥경, 1999)와 차이를 보여 후속연구들이 더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가족 스트레스 2번째 순위로 나타난 자녀역할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남편(M=3.14)이 아내(M=2.8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즉 남편이 아내보다 부모에 대한 자녀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가 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윤리의 의식 흐름을 갖고 있는 아들의 노부모부양에 관한 책임의식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2>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 정도

| 구분 | 남편(134) M | SD | 아내(134) M | SD | 전체(268) M | SD | t-test |
|---|---|---|---|---|---|---|---|
| 전체 스트레스 | 3.02 | .65 | 2.93 | .76 | 2.98 | .71 | 1.04 |
| 부부역할 스트레스 | 2.89 | .66 | 2.72 | .78 | 2.81 | .73 | 1.94 |
| 가사관련 스트레스 | 2.83 | .76 | 3.03 | .95 | 2.92 | .87 | -1.87 |
| 부모역할 스트레스 | 3.26 | .86 | 3.13 | .96 | 3.19 | .91 | 1.21 |
| 자녀역할 스트레스 | 3.14 | .78 | 2.86 | .82 | 3.00 | .81 | 2.85** |

** $p<.01$

또한 시부모에 대한 며느리의 입장은 아들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자녀역할에 대한 부부간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3번째 순위로 나타난 가사관련 스트레스에서는 아내(M=3.03)가 남편(M=2.83)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내의 가사관련 스트레스가 남편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직장과 가정생활을 겸하고 있는 아내가 직장 일만 주로 담당하는 남편에 비해 가사에 대해 부담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말부부의 경우 밀린 가사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부부역할 스트레스는 연구자의 예측과는 달리 가족 스트레스 영역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 가족이 부부중심보다는 자녀중심의 생활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면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부간의 차이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부부역할 스트레스에

서 남편(M=2.89)이 아내(M=2.7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주말부부 생활에 있어 남편의 어려움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주말부부의 어려움 해결에 있어 남편의 입장을 좀더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결과는 부부의 역할갈등이 낮은 가운데서도, 아내의 역할갈등이 남편에 비해 대체로 높다는 선행연구(김은경, 1999)와는 차이를 보여, 주말부부의 부부역할 스트레스에 있어서 부부간의 차이에 대한 경향성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2.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5개의 요인(인지 재구조화, 취미활동, 역할분담, 관리활동, 정서적 지원)을 대처전략의 하위영역으로 정하고 주말부부들이 어떤 대처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말부부들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 사용 정도는 5점 척도에 평균 3.37로서 중간점수 보다 높게 나타나, 비교적 높은 대처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간 차이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은 부부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비교해 보면 '인지 재구조화' 전략의 사용정도가 평균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미활동' 전략이 평균 2.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들이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으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을 재해석하고 합리화하는 '인지 재구조화'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관련선행연구 결과(이현주, 1997; 전영자, 1997)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2번째 순위는 '역할분담' 전략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관리활동', '정서적 지원', '취미활동' 전략 순으로 나타났다. 주말부부가 사용하는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에 있어서 부부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주말부부의 부부간 대처전략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주말부부의 영역별 대처전략 사용정도

| 대처전략 | 남편(134) | | 아내(134) | | 전체(268) | | t-test |
|---|---|---|---|---|---|---|---|
| | M | SD | M | SD | M | SD | |
| 전체 | 3.35 | .46 | 3.38 | .56 | 3.37 | .51 | -.39 |
| 인지 재구조화 | 3.71 | .53 | 3.63 | .71 | 3.67 | .63 | 1.07 |
| 취미활동 | 2.95 | .84 | 2.76 | .96 | 2.85 | .90 | 1.78 |
| 역할분담 | 3.58 | .68 | 3.58 | .84 | 3.58 | .76 | .00 |
| 관리활동 | 3.33 | .69 | 3.56 | .73 | 3.45 | .72 | -2.51** |
| 정서적 지원 | 2.78 | .86 | 3.15 | .95 | 2.97 | .92 | -3.33*** |

** P<.01, *** P<.001

한편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에 있어 영역별로 부부간의 차이를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지 재구조화' 전략은 남편(M=3.71)이 아내(M=3.63)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대처행동에 관한 선행연구(김명자, 1991; 송말희, 1990; 최규련, 1994; 최혜경 · 노치영, 1994)에서 남편이 주로 이성적 대처유형을 취한다는 보고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부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2번째 순위인 '역할분담'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는 주말부부의 특성으로 부부가 함께 역할을 잘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번째 순위로 나타난 '관리활동' 전략은 아내(M=3.56)가 남편(M=3.33)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4번째 순위인 '정서적 지원' 전략도 아내(M=3.15)가 남편(M=2.7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가장 적게 사용하는 '취미활동' 전략은 남편이 아내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으로 부부간에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관리활동'과 '정서적 지원'전략으로서 이들 전략은 모두 아내가 남편보다 높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말부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의 정도

| 사회인구학적 변인 | 남편(134) | | | | 아내(134) | | | | 전체(268) | | | |
|---|---|---|---|---|---|---|---|---|---|---|---|---|
| | N | M | F(t) | D | N | M | F(t) | D | N | M | F(t) | D |
| 연령 20대 | 4 | 3.00 | | B | 7 | 2.82 | | A | 11 | 2.88 | | A |
| 30대 | 48 | 3.21 | | B | 65 | 3.11 | | B | 113 | 3.15 | | B |
| 40대 | 61 | 2.97 | 2.77* | A | 45 | 2.87 | 3.87** | A | 106 | 2.92 | 6.16*** | A |
| 50대 | 21 | 2.76 | | A | 17 | 2.45 | | A | 38 | 2.62 | | A |
| 교육 고졸 | 5 | 3.11 | | | 21 | 2.92 | | | 26 | 2.95 | | |
| 수준 전문대졸 | 8 | 3.33 | | | 18 | 2.97 | | | 26 | 3.08 | | |
| 대학졸 | 74 | 3.08 | .89 | | 70 | 2.94 | .03 | | 144 | 2.99 | .32 | |
| 대학원졸 | 47 | 2.94 | | | 25 | 2.91 | | | 72 | 2.93 | | |
| 종교 없음 | 73 | 3.04 | | | 66 | 3.01 | | | 139 | 3.03 | | |
| 유무 있음 | 61 | 3.00 | .31 | | 68 | 2.86 | 1.11 | | 129 | 2.93 | 1.09 | |
| 자녀수 1명 | 38 | 3.10 | | | 38 | 3.02 | | | 76 | 3.06 | | |
| 2명 | 84 | 3.03 | 1.25 | | 84 | 2.92 | .59 | | 168 | 2.97 | 1.68 | |
| 3명 | 12 | 2.76 | | | 12 | 2.76 | | | 24 | 2.76 | | |
| 맏이 7세이하 | 38 | 3.16 | | | 38 | 3.09 | | | 76 | 3.12 | | A |
| 연령 초등학생 | 35 | 3.12 | | | 35 | 2.91 | | | 70 | 3.01 | | A |
| 중·고생 | 34 | 2.93 | 2.03 | | 34 | 2.97 | 1.43 | | 68 | 2.95 | 3.02* | A |
| 대학생 이상 | 27 | 2.81 | | | 27 | 2.69 | | | 54 | 2.76 | | B |
| 직업 교수·전문직 | 24 | 2.79 | | | 11 | 2.95 | | | 35 | 2.84 | | B |
| 교사·연구직 | 52 | 2.98 | | | 65 | 2.97 | | | 117 | 2.97 | | B |
| 관리직(과장이상) | 31 | 3.12 | 2.07 | | | | | | 31 | 3.15 | 4.13** | B |
| 사무직·공무원 | 27 | 3.20 | | | 18 | 3.30 | 3.19* | | 45 | 3.24 | | C |
| 주부 | | | | | 40 | 2.69 | | | 40 | 2.69 | | A |
| 가정 200만원 미만 | 7 | 2.85 | | | 7 | 3.04 | | | 14 | 2.95 | | |
| 월수입 200-300만원 미만 | 35 | 3.20 | | | 35 | 3.03 | | | 70 | 3.11 | | |
| 정도 300-400만원 미만 | 41 | 2.93 | 1.16 | | 41 | 2.96 | .60 | | 82 | 2.94 | .96 | |
| 400-500만원 미만 | 30 | 3.06 | | | 30 | 2.76 | | | 60 | 2.91 | | |
| 500만원 이상 | 21 | 2.93 | | | 21 | 2.89 | | | 42 | 2.90 | | |
| 주중 혼자 | 116 | 3.04 | | | 29 | 3.08 | | | 145 | 3.04 | | |
| 가족 자녀와 | 10 | 2.99 | | | 78 | 2.92 | | | 88 | 2.93 | | |
| 형태 자녀 및 부모 | 5 | 2.87 | .13 | | 13 | 2.53 | 1.62 | | 18 | 2.63 | 1.53 | |
| 자녀 및 처부모 | | | | | 14 | 3.04 | | | 14 | 3.04 | | |
| 기타 | 3 | 2.94 | | | | | | | 3 | 2.94 | | |
| 평소 집안일 없다 | 101 | 3.00 | | | 90 | 2.87 | | | 191 | 2.94 | | |
| 돕는 사람 있다 | 33 | 3.09 | -.76 | | 44 | 3.06 | -1.25 | | 77 | 3.07 | -1.35 | |
| 돕는 사람 고용인 | 6 | 2.96 | | | 8 | 3.12 | | | 14 | 3.06 | | |
| 부모 | 20 | 3.08 | | | 16 | 2.82 | | | 36 | 2.97 | | |
| 처부모 | 5 | 3.31 | 1.31 | | 18 | 3.26 | 1.20 | | 23 | 3.27 | 1.17 | |
| 기타 | 2 | 3.00 | | | 2 | 2.80 | | | 4 | 2.90 | | |
| 주말부부로 1년 미만 | 30 | 2.96 | | | 30 | 2.71 | | | 60 | 2.83 | | A |
| 지낸 기간 1-2년 | 34 | 2.88 | | | 34 | 2.87 | | | 68 | 2.87 | | A |
| 3-5년 | 31 | 3.22 | | | 31 | 3.20 | 1.98 | | 62 | 3.21 | 2.95* | B |
| 6-9년 | 27 | 3.06 | 1.20 | | 27 | 3.05 | | | 54 | 3.06 | | A |
| 10년 이상 | 12 | 3.00 | | | 12 | 2.77 | | | 24 | 2.89 | | A |
| 주말에 이동 남편 | 106 | 3.04 | | | 106 | 2.91 | | | 212 | 2.97 | | |
| 하는 사람 아내 | 11 | 2.89 | .22 | | 11 | 3.27 | 1.44 | | 11 | 3.10 | .43 | |
| 양쪽 모두 | 17 | 3.02 | | | 17 | 2.85 | | | 17 | 2.93 | | |
| 부부가 매주말 | 100 | 2.95 | | A | 100 | 2.91 | | A | 200 | 2.93 | | A |
| 만나는 2주마다 | 27 | 3.23 | 3.09* | A | 27 | 3.16 | 3.15* | A | 54 | 3.19 | 3.15* | A |
| 주기 3주마다 | 7 | 3.36 | | B | 7 | 2.33 | | B | 14 | 2.88 | | A |
| 결혼 5년이하 | 24 | 3.15 | | | 24 | 3.07 | | | 48 | 3.11 | | B |
| 지속 6-9년 | 23 | 3.22 | | | 23 | 3.26 | | | 46 | 3.24 | | C |
| 년수 10-14년 | 34 | 3.04 | 1.53 | | 34 | 2.87 | | | 68 | 2.95 | 3.56** | B |
| 15-19년 | 26 | 2.86 | | | 26 | 2.79 | 2.08 | | 52 | 2.83 | | B |
| 20년 이상 | 27 | 2.87 | | | 27 | 2.74 | | | 54 | 2.81 | | A |

* P<.05, ** P<.01, ***P<.001, D: Duncan test 범주별 검증결과임

### 3. 사회인구학적, 개인 변인에 따른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 및 대처전략

1) 주말부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말부부의 연령($p<.001$), 맏이의 연령($p<.05$), 직업($p<.01$),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p<.05$), 부부가 만나는 주기($p<.05$), 결혼지속년수($p<.01$) 등으로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의 연령이 30대에서 가족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맏이의 연령이 어릴수록 가족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이 사무직일 때 다른 직업보다 가족 스트레스가 크게 나타나 직장 분위기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는 가족 스트레스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내가 직장과 가정생활을 겸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가족 스트레스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이 3-5년 사이일 때 가족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나서 이 시기가 적응상의 어려움이 많은 시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말부부가 만나는 주기는 '2주마다' 만날 때 가족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나타나 매 주말 만나지 못하는 주말부부들의 가족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결혼지속년수에 있어서는 가족스트레스가 '6-9년' 일 때 가장 크고 다음이 '5년 이하'이며, 그 외는 결혼지속년수가 길어질수록 가족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말부부의 결혼생활 초기가 스트레스가 많고 결혼생활을 오래할수록 주말부부의 어려움도 서로 잘 적응해 나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학령전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역할 갈등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Winfield, 1985)와 연령, 직종에 따라 부모역할 갈등에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김경은 · 정옥분, 1998; 채옥희, 1998)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종 및 연령에 따른 부모역할 갈등에 차이가 없다는 옥경희(1999)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한편 부부별로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는 연령($P<.05$)과 부부가 만나는 주기($P<.05$)가 영향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아내는 연령($P<.01$)과 직업($P<.05$), 부부가 만나는 주기($P<.05$) 등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가 차이를 보인 변인은 '직업' 변인으로 아내에게서만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내가 전업주부일 경우 다른 직업보다 가족 스트레스가 훨씬 낮게 나타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후속연구의 방향으로서 아내의 직장 유무와 관련된 연구주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하겠다.

2) 주말부부의 개인변인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의 정도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개인변인은 <표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P<.01$)과 결혼만족도($P<.001$)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보다 가족스트레스가 더 낮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전영자, 1997)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또한 결혼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결혼만족도가 낮은 집단보다 가족 스트레스가 더 낮게 나타나 결혼만족도가 가족스트레스의 영향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표 5> 주말부부의 개인변인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

| 개인변인 | 남편(134) | | | | 아내(134) | | | | 전체(268) | | | |
|---|---|---|---|---|---|---|---|---|---|---|---|---|
| | N | M | SD | t-test | N | M | SD | t-test | N | M | SD | t-test |
| 자아존중감 낮은 집단 | 72 | 3.17 | .54 | | 75 | 3.01 | .76 | | 147 | 3.09 | .67 | |
| 높은 집단 | 62 | 2.85 | .72 | 2.98** | 59 | 2.83 | .76 | 1.31 | 121 | 2.84 | .74 | 2.86** |
| 결혼만족도 낮은 집단 | 50 | 3.21 | .53 | | 59 | 3.18 | .64 | | 109 | 3.20 | .59 | |
| 높은 집단 | 84 | 2.91 | .68 | 2.69** | 75 | 2.74 | .80 | 3.62*** | 159 | 2.83 | .75 | 4.35*** |
| 직업만족도 낮은 집단 | 65 | 3.13 | .58 | | 28 | 3.14 | .80 | | 94 | 3.14 | .65 | |
| 높은 집단 | 69 | 2.92 | .70 | 1.86 | 66 | 2.99 | .78 | .86 | 134 | 2.96 | .74 | 1.92 |

* P<.05, **P<.01, ***P<.001

이는 아직까지 결혼 만족도를 가족 스트레스와 연관시킨 연구결과가 없으므로 비교할 수 없으나, 가족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직업만족도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아 직업 스트레스가 가족생활에서의 부정적 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이형실, 2001; Barnett, 1994; Kinnunen, 1996)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앞으로 후속연구가 계속될 때 그 경향성이 규명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부부별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 정도는 남편에게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1$) 아내에게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부부간에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결혼만족도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정도는 남편($P<.01$)과 아내($P<.001$) 모두에게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 정도에 있어 결혼만족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3) 주말부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 대처 전략

주말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영향변인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은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교($P<.01$)와 주중 가족형태($P<.05$)에 있어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가 종교를 가졌을 때, 종교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주말부부 중 친정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그 외의 가족형태에 비해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을 더 높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인 주말부부 중에서 자녀가 어린 젊은 층 집단이 많았는데 친정부모와 함께 동거할 경우 가족 스트레스 관리가 좀더 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이런 결과는 요즈음 사회변화의 하나로 아내의 친정과의 친밀성 증가를 지지해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겠다.

한편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을 부부별로 보면 남편의 경우는 종교 유무($P<.01$)에 의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내는 주중가족형태($P<.05$)에 의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은 남편의 경우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대처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신앙에 의지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이현주, 1997)와는 차이를 보였다. 한편 아내의 경우는 주중에 친정부모와 살고 있을 때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친정으로부터의 원조가 주말부부에게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본 결과는 부부간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 영향 요인 차이를 규명해줌으로써 부부이해 관련 프로그램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4) 주말부부의 개인변인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 대처전략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영향을 주는 개인변인은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 모두가 영향을 주는($p<.001$)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가족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적 대처방안이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전영자, 1997; Crossman, 1984)와 일치하는 경향이며, 가족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있어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 및 직업만족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족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있어 부부별 차이를 보면 자아존중감 변인은 아내에서만, 결혼만족도 변인은 남편과 아내 모두, 직업만족도 변인은 아내에서만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의 경우는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라는 개인변인에 따라 가족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정도가 달라지는 데 비해, 남편의 경우는 결혼만족도에 의해서만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표 6> 주말부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 대처전략

| 사회인구학적 변인 | | 남편(134) | | | | 아내(134) | | | | 전체(268) | | | |
|---|---|---|---|---|---|---|---|---|---|---|---|---|---|
| | | N | M | F(t) | D | N | M | F(t) | D | N | M | F(t) | D |
| 연령 | 20대 | 4 | 3.64 | | | 7 | 3.75 | | | 11 | 3.71 | | |
| | 30대 | 48 | 3.34 | | | 65 | 3.42 | | | 113 | 3.39 | | |
| | 40대 | 61 | 3.36 | .53 | | 45 | 3.33 | 1.71 | | 106 | 3.34 | 2.13 | |
| | 50대 | 21 | 3.32 | | | 17 | 3.22 | | | 38 | 3.28 | | |
| 교육 | 고졸 | 5 | 3.15 | | | 21 | 3.22 | | | 26 | 3.20 | | |
| 수준 | 전문대졸 | 8 | 3.25 | | | 18 | 3.35 | | | 26 | 3.32 | | |
| | 대학졸 | 74 | 3.42 | 1.13 | | 70 | 3.39 | .99 | | 144 | 3.40 | 1.17 | |
| | 대학원졸 | 47 | 3.30 | | | 25 | 3.51 | | | 72 | 3.37 | | |
| 종교 | 없음 | 73 | 3.25 | | | 66 | 3.33 | | | 139 | 3.29 | | |
| 유무 | 있음 | 61 | 3.49 | -3.01** | | 68 | 3.44 | -1.10 | | 129 | 3.45 | -2.76** | |
| 자녀수 | 1명 | 38 | 3.30 | | | 38 | 3.47 | | | 76 | 3.38 | | |
| | 2명 | 84 | 3.36 | .80 | | 84 | 3.32 | 1.16 | | 168 | 3.34 | .92 | |
| | 3명 | 12 | 3.49 | | | 12 | 3.49 | | | 24 | 3.49 | | |
| 맏이 | 7세이하 | 38 | 3.38 | | | 38 | 3.49 | | | 76 | 3.43 | | |
| 연령 | 초등학생 | 35 | 3.27 | | | 35 | 3.36 | | | 70 | 3.31 | | |
| | 중·고생 | 34 | 3.43 | .68 | | 34 | 3.34 | .61 | | 68 | 3.38 | .79 | |
| | 대학생 이상 | 27 | 3.33 | | | 27 | 3.31 | | | 54 | 3.32 | | |
| 직업 | 교수·전문직 | 24 | 3.22 | | | 11 | 3.52 | | | 35 | 3.32 | | |
| | 교사·연구직 | 52 | 3.38 | | | 65 | 3.48 | | | 117 | 3.43 | | |
| | 관리직(과장이상) | 31 | 3.34 | 1.01 | | | | | | 31 | 3.31 | 1.25 | |
| | 사무직·공무원 | 27 | 3.45 | | | 18 | 3.29 | 2.10 | | 45 | 3.38 | | |
| | 주부 | | | | | 40 | 3.24 | | | 40 | 3.24 | | |
| 가정 | 200만원 미만 | 7 | 3.42 | | | 7 | 3.39 | | | 14 | 3.40 | | |
| 월수입 | 200-300만원 미만 | 35 | 3.41 | | | 35 | 3.30 | | | 70 | 3.35 | | |
| 정도 | 300-400만원 미만 | 41 | 3.27 | .83 | | 41 | 3.44 | .33 | | 82 | 3.35 | .31 | |
| | 400-500만원 미만 | 30 | 3.44 | | | 30 | 3.42 | | | 60 | 3.43 | | |
| | 500만원 이상 | 21 | 3.29 | | | 21 | 3.37 | | | 42 | 3.33 | | |
| 주중 | 혼자 | 116 | 3.36 | | | 29 | 3.44 | | A | 145 | 3.37 | | A |
| 가족 | 자녀와 | 10 | 3.50 | | | 78 | 3.29 | | A | 88 | 3.32 | | A |
| 형태 | 자녀 및 부모 | 5 | 3.30 | .97 | | 13 | 3.35 | 2.97* | A | 18 | 3.34 | 2.72* | A |
| | 자녀 및 처부모 | | | | | 14 | 3.76 | | B | 14 | 3.76 | | B |
| | 기타 | 3 | 3.00 | | | | | | | 3 | 3.00 | | A |
| 평소 집안일 | 없다 | 101 | 3.38 | | | 90 | 3.33 | | | 191 | 3.36 | | |
| 돕는 사람 | 있다 | 33 | 3.27 | 1.28 | | 44 | 3.48 | -1.34 | | 77 | 3.39 | -.42 | |
| 돕는 사람 | 고용인 | 6 | 3.22 | | | 8 | 3.50 | | | 14 | 3.37 | | |
| | 부모 | 20 | 3.26 | | | 16 | 3.43 | | | 36 | 3.33 | | |
| | 처부모 | 5 | 3.47 | .69 | | 18 | 3.60 | 1.53 | | 23 | 3.57 | 1.68 | |
| | 기타 | 2 | 3.09 | | | 2 | 2.78 | | | 4 | 2.93 | | |
| 주말부부로 | 1년 미만 | 30 | 3.36 | | | 30 | 3.43 | | | 60 | 3.39 | | |
| 지낸 기간 | 1-2년 | 34 | 3.45 | | | 34 | 3.42 | | | 68 | 3.44 | | |
| | 3-5년 | 31 | 3.29 | .67 | | 31 | 3.25 | .68 | | 62 | 3.27 | 1.15 | |
| | 6-9년 | 27 | 3.31 | | | 27 | 3.36 | | | 54 | 3.33 | | |
| | 10년 이상 | 12 | 3.40 | | | 12 | 3.51 | | | 24 | 3.45 | | |
| 주말에 이동 | 남편 | 106 | 3.34 | | | 106 | 3.34 | | | 212 | 3.34 | | |
| 하는 사람 | 아내 | 11 | 3.48 | .46 | | 11 | 3.37 | 1.56 | | 11 | 3.42 | 1.34 | |
| 양쪽 모두 | | 17 | 3.37 | | | 17 | 3.60 | | | 17 | 3.49 | | |
| 부부가 | 매주말 | 100 | 3.37 | | | 100 | 3.39 | | | 200 | 3.38 | | |
| 만나는 | 2주마다 | 27 | 3.29 | .42 | | 27 | 3.34 | .08 | | 54 | 3.31 | .34 | |
| 주기 | 3주마다 | 7 | 3.43 | | | 7 | 3.35 | | | 14 | 3.39 | | |
| 결혼 | 5년이하 | 24 | 3.34 | | | 24 | 3.62 | | | 48 | 3.48 | | |
| 지속 | 6-9년 | 23 | 3.38 | | | 23 | 3.24 | | | 46 | 3.30 | | |
| 년수 | 10-14년 | 34 | 3.28 | .96 | | 34 | 3.38 | 1.53 | | 68 | 3.33 | 1.01 | |
| | 15-19년 | 26 | 3.50 | | | 26 | 3.33 | | | 52 | 3.42 | | |
| | 20년 이상 | 27 | 3.30 | | | 27 | 3.34 | | | 54 | 3.32 | | |

* p<.05, * p<.01, D:Duncan test 범주별 검증결과임

<표 7> 주말부부의 개인변인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 대처전략 정도

| 개인변인 | 남편(134) | | | | 아내(134) | | | | 전체(268) | | | |
|---|---|---|---|---|---|---|---|---|---|---|---|---|
| | N | M | SD | t-test | N | M | SD | t-test | N | M | SD | t-test |
| 자아존중감 낮은 집단 | 72 | 3.31 | .41 | | 75 | 3.24 | .57 | | 147 | 3.28 | .49 | |
| 높은 집단 | 62 | 3.41 | .51 | -1.14 | 59 | 3.56 | .51 | -3.39*** | 121 | 3.48 | .51 | 3.26*** |
| 결혼만족도 낮은 집단 | 50 | 3.17 | .41 | | 59 | 3.12 | .52 | | 109 | 3.14 | .47 | |
| 높은 집단 | 84 | 3.47 | .46 | -4.04*** | 75 | 3.59 | .51 | -5.33*** | 159 | 3.53 | .48 | -6.61*** |
| 직업만족도 낮은 집단 | 65 | 3.31 | .41 | | 28 | 3.11 | .59 | | 94 | 3.25 | .48 | |
| 높은 집단 | 69 | 3.36 | .46 | -1.01 | 66 | 3.58 | .50 | -3.97*** | 134 | 3.49 | .51 | -3.53*** |

* p<.05, ** p<.01, *** p<.001

## 4. 주말부부의 가족 건강성 정도

주말부부 가족의 건강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체적인 가족의 건강성 및 각 하위영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말부부의 가족 건강성 점수는 5점 만점 기준에 평균 3.76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어은주외, 1996)와 비슷한 경향이나 수치상으로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 낮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가족원간의 유대가 3.86점, 가족문제해결 수행능력이 3.84점,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이 3.77점,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3.57점으로 나타나 주말부부의 가족관계가 전반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보인다.

<표 8> 주말부부의 가족 건강성 정도

| 구분 | 남편(134) | | 아내(134) | | 전체(268) | | t-test |
|---|---|---|---|---|---|---|---|
| | M | SD | M | SD | M | SD | |
| 가족의 건강성 | 3.75 | .54 | 3.77 | .61 | 3.76 | .58 | -.31 |
| 가족원간의 유대 | 3.86 | .57 | 3.86 | .63 | 3.86 | .59 | -.02 |
|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 3.76 | .58 | 3.79 | .66 | 3.77 | .63 | -.41 |
|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 3.56 | .56 | 3.58 | .67 | 3.57 | .62 | -.24 |
| 가족문제해결 수행능력 | 3.83 | .59 | 3.86 | .62 | 3.84 | .61 | -.48 |

한편 하위영역별 점수에서 가족원간의 유대가 가장 높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 경향(어은주 외, 1996)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족원간의 유대는 계속해서 높게 연결되어 있지만, 가족의 규범, 전통, 가치관 등의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영역은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선행연구결과와 차이가 나는 면은 가족문제해결 수행능력이 두 번째 순위로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본 연구 대상이 주말부부여서 대부분이 직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생활인이라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가족 건강성 정도에 있어 부부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서 남편과 아내가 같은 경향임을 알 수 있다.

## 5. 사회인구학적, 개인적 변인에 따른 주말부부의 가족 건강성 정도

### 1) 주말부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 건강성

주말부부의 가족 건강성 정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부의 교육수준(p<.01), 종교유무(p<.01), 직업(p<.01),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p<.01),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p<.001), 부부가 만나는 주기(p<.001), 결혼지속년수(p<.01) 등으로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의 가족 건강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부부가 만나는 간격 주기가 짧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말부부의 가족 건강성은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이 '1-2년 사이' 일 때 가장 높고, '3-5년 사이'일 때 가장 낮게 나타나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에 따라 가족 건강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경우일 때 가족 건강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지속년수는 5년 이하일 경우 가족건강성이 가장 높았으며, '6-9년' 사이에 가족 건강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요즈음 이혼이 가장 빈번한 시기인 '5년에서 10년 사이'와 맞물려 가족 건강성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이 남편이 아닌 경우에 가족 건강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흥미로운 결과로서 이는 아내가 이동하거나, 부부양쪽이 이동하는 것이 가족의 건강성에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주말부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와 비교하여 가족의 건강성 경향을 알아보고, 주말부부의 가족 건강성 영향변인을 규명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한편 가족 건강성의 사회인구학적 영향변인에 대한 부부별 차이를 보면 남편의 경우는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p<.01), 부부가 만나는 주기(p<.001), 결혼지속년수(p<.05) 등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경우는 교육수준(p<.01), 종교유무(p<.01), 직업(p<.01),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p<.05),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p<.05), 부부가 만나는 주기(p<.01) 등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에게 공통으로 나타난 영향변인인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과 '부부가 만나는 주기'를 제외하고는 남편은 '결혼지속년수'가 영향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아내의 경우는 교육수준, 종교유무, 직업,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 등 많은 요인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나 가족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변인이 부부가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가족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 부부간의 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배려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 주말부부의 개인변인에 따른 가족 건강성

주말부부의 개인변인에 따른 가족 건강성은 다음의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p<.001), 결혼만족도(p<.001), 직업만족도(p<.001) 변인이 모두 가족 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 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결혼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가족 건강성과 정적인 관련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윤희, 1989; 양순미외, 2001; 어은주 · 유영주 1997; Farrell & Barnes, 1993)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말부부에게도 일반 맞벌이 부부나 마찬가지로 결혼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말부부의 직업만족도에 따른 가족 건강성 규명은 본 연구에서 최초로 시도된 연구로서 부부가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의 형태로 산다 할지라도 직업만족도가 높을 경우는 가족 건강성이 높게 나타나 주부의 취업이 가족의 건강성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는 주말부부로 살고있는 취업주부들의 직장생활을 지원해주는 하나의 연구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부별 차이를 보면 남편과 아내 모두 이 세 가지 개인변인이 모두 영향 변인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남편이나 아내 모두에게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는 가족 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 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주말부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 건강성

| 사회인구학적 변인 | | 남편(134) | | | | 아내(134) | | | | 전체(268) | | | |
|---|---|---|---|---|---|---|---|---|---|---|---|---|---|
| | | N | M | F(t) | D | N | M | F(t) | D | N | M | F(t) | D |
| 연령 | 20대 | 4 | 3.94 | | | 7 | 3.93 | | | 11 | 3.93 | | |
| | 30대 | 48 | 3.78 | | | 65 | 3.77 | | | 113 | 3.78 | | |
| | 40대 | 61 | 3.75 | .40 | | 45 | 3.78 | .29 | | 106 | 3.76 | .68 | |
| | 50대 | 21 | 3.66 | | | 17 | 3.68 | | | 38 | 3.67 | | |
| 교육 | 고졸 | 5 | 3.29 | | | 21 | 3.41 | | A | 26 | 3.39 | | A |
| 수준 | 전문대졸 | 8 | 3.58 | | | 18 | 3.64 | | B | 26 | 3.63 | | B |
| | 대학졸 | 74 | 3.81 | 1.84 | | 70 | 3.83 | 4.54** | B | 144 | 3.82 | 5.23** | B |
| | 대학원졸 | 47 | 3.73 | | | 25 | 4.01 | | C | 72 | 3.83 | | B |
| 종교 | 없음 | 73 | 3.71 | | | 66 | 3.63 | | | 139 | 3.67 | | |
| 유무 | 있음 | 61 | 3.81 | -1.02 | | 68 | 3.91 | -2.69** | | 129 | 3.86 | -2.71** | |
| 자녀수 | 1명 | 38 | 3.74 | | | 38 | 3.83 | | | 76 | 3.78 | | |
| | 2명 | 84 | 3.74 | .63 | | 84 | 3.72 | 1.01 | | 168 | 3.73 | 1.58 | |
| | 3명 | 12 | 3.92 | | | 12 | 3.97 | | | 24 | 3.95 | | |
| 맏이 | 7세이하 | 38 | 3.81 | | | 38 | 3.82 | | | 76 | 3.82 | | |
| 연령 | 초등학생 | 35 | 3.74 | | | 35 | 3.78 | | | 70 | 3.77 | | |
| | 중·고생 | 34 | 3.83 | 1.28 | | 34 | 3.75 | .16 | | 68 | 3.79 | .99 | |
| | 대학생 이상 | 27 | 3.58 | | | 27 | 3.71 | | | 54 | 3.65 | | |
| 직업 | 교수·전문직 | 24 | 3.77 | | | 11 | 4.03 | | C | 35 | 3.85 | | B |
| | 교사·연구직 | 52 | 3.81 | | | 65 | 3.93 | | B | 117 | 3.88 | | B |
| | 관리직(과장이상) | 31 | 3.66 | .49 | | | | | | 31 | 3.66 | 3.18** | B |
| | 사무직·공무원 | 27 | 3.73 | | | 18 | 3.48 | 5.15** | A | 45 | 3.63 | | B |
| | 주부 | | | | | 40 | 3.59 | | B | 40 | 3.58 | | A |
| 가정 | 200만원 미만 | 7 | 3.81 | | | 7 | 3.81 | | | 14 | 3.81 | | |
| 월수입 | 200-300만원 미만 | 35 | 3.59 | | | 35 | 3.68 | | | 70 | 3.64 | | |
| 정도 | 300-400만원 미만 | 41 | 3.72 | 1.56 | | 41 | 3.73 | .65 | | 82 | 3.73 | 2.04 | |
| | 400-500만원 미만 | 30 | 3.90 | | | 30 | 3.90 | | | 60 | 3.90 | | |
| | 500만원 이상 | 21 | 3.84 | | | 21 | 3.85 | | | 42 | 3.84 | | |
| 주중 | 혼자 | 116 | 3.73 | | | 29 | 3.86 | | | 145 | 3.76 | | |
| 가족 | 자녀와 | 10 | 4.05 | | | 78 | 3.69 | | | 88 | 3.73 | | |
| 형태 | 자녀 및 부모 | 5 | 3.70 | 1.10 | | 13 | 3.78 | 1.61 | | 18 | 3.76 | .91 | |
| | 자녀 및 처부모 | | | | | 14 | 4.04 | | | 14 | 4.04 | | |
| | 기타 | 3 | 3.80 | | | | | | | 3 | 3.80 | | |
| 평소 집안일 | 없다 | 101 | 3.78 | | | 90 | 3.72 | | | 191 | 3.75 | | |
| 돕는 사람 | 있다 | 33 | 3.66 | 1.99 | | 44 | 3.88 | -1.49 | | 77 | 3.78 | -.47 | |
| 돕는 사람 | 고용인 | 6 | 3.63 | | | 8 | 3.75 | | | 14 | 3.70 | | |
| | 부모 | 20 | 3.60 | | | 16 | 3.96 | | | 36 | 3.76 | | |
| | 처부모 | 5 | 3.89 | .61 | | 18 | 3.93 | 1.27 | | 23 | 3.92 | .71 | |
| | 기타 | 2 | 3.80 | | | 2 | 3.23 | | | 4 | 3.51 | | |
| 주말부부로 | 1년 미만 | 30 | 3.85 | | | 30 | 3.87 | | B | 60 | 3.86 | | B |
| 지낸 기간 | 1-2년 | 34 | 3.89 | | | 34 | 3.96 | | B | 68 | 3.92 | | B |
| | 3-5년 | 31 | 3.61 | | | 31 | 3.49 | 2.69* | A | 62 | 3.55 | 4.11** | A |
| | 6-9년 | 27 | 3.71 | 1.55 | | 27 | 3.76 | | B | 54 | 3.73 | | B |
| | 10년 이상 | 12 | 3.62 | | | 12 | 3.75 | | B | 24 | 3.68 | | B |
| 주말에 이동 | 남편 | 106 | 3.68 | | A | 106 | 3.71 | | A | 212 | 3.69 | | A |
| 하는 사람 | 아내 | 11 | 4.01 | 4.62** | A | 11 | 3.89 | 3.03* | A | 11 | 3.94 | 7.35*** | B |
| 양쪽 모두 | | 17 | 4.03 | | A | 17 | 4.07 | | A | 17 | 4.05 | | B |
| 부부가 | 매주말 | 100 | 3.85 | | B | 100 | 3.86 | | B | 200 | 3.86 | | B |
| 만나는 | 2주마다 | 27 | 3.48 | 7.19*** | A | 27 | 3.56 | 5.11** | A | 54 | 3.52 | 11.95*** | A |
| 주기 | 3주마다 | 7 | 3.39 | | A | 7 | 3.26 | | A | 14 | 3.33 | | A |
| 결혼 | 5년이하 | 24 | 3.87 | | A | 24 | 3.98 | | | 48 | 3.92 | | C |
| 지속 | 6-9년 | 23 | 3.58 | | A | 23 | 3.54 | | | 46 | 3.56 | | A |
| 년수 | 10-14년 | 34 | 3.87 | 2.47* | A | 34 | 3.85 | | | 68 | 3.86 | 3.62** | B |
| | 15-19년 | 26 | 3.85 | | A | 26 | 3.74 | 1.77 | | 52 | 3.79 | | B |
| | 20년 이상 | 27 | 3.55 | | A | 27 | 3.73 | | | 54 | 3.64 | | B |

* p<.05, ** p<.01, *** p<.001, D: Duncan test 범주별 검증 결과임.

<표 10> 주말부부의 개인 변인에 따른 가족 건강성 정도

| 개인변인 | 남편(134) | | | | 아내(134) | | | | 전체(268) | | | |
|---|---|---|---|---|---|---|---|---|---|---|---|---|
| | N | M | SD | t-test | N | M | SD | t-test | N | M | SD | t-test |
| 자아존중감 낮은 집단 | 72 | 3.57 | .55 | | 75 | 3.57 | .59 | | 147 | 3.57 | .57 | |
| 높은 집단 | 62 | 3.96 | .45 | -4.51*** | 59 | 4.04 | .54 | -4.84*** | 121 | 4.00 | .49 | -6.63*** |
| 결혼만족도 낮은 집단 | 50 | 3.41 | .54 | | 59 | 3.43 | .58 | | 109 | 3.42 | .56 | |
| 높은 집단 | 84 | 3.96 | .43 | -6.41*** | 75 | 4.04 | .49 | -6.58*** | 159 | 3.99 | .46 | -9.15*** |
| 직업만족도 낮은 집단 | 65 | 3.62 | .62 | | 28 | 3.46 | .67 | | 94 | 3.57 | .64 | |
| 높은 집단 | 69 | 3.88 | .43 | -2.78** | 66 | 4.02 | .51 | -4.46*** | 134 | 3.95 | .47 | -5.11*** |

** p<.01, *** p<.001

## 6. 가족 스트레스 및 대처전략에 따른 가족 건강성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 및 대처전략에 따른 가족 건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집단을 나누었다. 가족 스트레스 점수 54점(18문항에 모두 스트레스가 '그저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을 기준으로 55점 이상은 가족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으로, 54점 이하는 가족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가족 건강성에 대해 집단별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평균=53.6). 또한 가족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집단 구분은 56점(16문항에 모두 '그저 그렇다'로 응답한 점수와 '대체로 그렇다'에 대답한 점수의 중간점수)을 기준으로 56점 이하는 대처전략이 낮은 집단으로 57점 이상은 대처전략이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평균=53.9). 이 같은 집단 구분 후에 평균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말부부의 가족 건강성 정도는 가족 스트레스와 대처전략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p<.01, p<.001). 즉 가족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가족 건강성 점수가 높게 나타나 가족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가족 건강성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또한 가족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가족 건강성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 주말부부의 가족 건강성이 가족 스트레스 대처전략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결과는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 및 대처전략 관리 수준에 따라 가족의 건강성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앞으로 가족 건강성 증진에 대한 유용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1>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 및 대처전략에 따른 가족 건강성

| 구분 | | 남편(134) | | | | 아내(134) | | | | 전체(268) | | | |
|---|---|---|---|---|---|---|---|---|---|---|---|---|---|
| | | N | M | SD | t-test | N | M | SD | t-test | N | M | SD | t-test |
| 가족 스트레스 | 낮은 집단 | 61 | 3.83 | .58 | | 71 | 3.89 | .61 | | 132 | 3.86 | .59 | |
| | 높은 집단 | 73 | 3.69 | .50 | 1.41 | 63 | 3.64 | .59 | 2.41** | 136 | 3.66 | .54 | 2.76** |
| 대처전략 | 낮은 집단 | 89 | 3.59 | .50 | | 88 | 3.58 | .59 | | 177 | 3.58 | .55 | |
| | 높은 집단 | 45 | 4.07 | .47 | -5.55*** | 46 | 4.14 | .46 | -5.96*** | 91 | 4.11 | .47 | -8.18*** |

** p<.01, *** p<.001

# V. 결론

본 연구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가족생활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가족형태의 하나인 주말부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주말부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시점에서 우선 주말부부라는 독

특한 삶의 형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족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대처전략, 그리고 가족 건강성이 어떠한지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주말부부 134쌍, 총268명을 연구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 정도는 5점 척도에 평균 2.98점으로 중간점수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가 조금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부부간의 차이를 보면 남편이 아내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어 부부간의 가족 스트레스 정도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녀역할 스트레스', '가사관련 스트레스', '부부역할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나 주말부부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영역이 '부모역할' 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옥경희, 1999)와 일치하는 경향으로, 자녀교육문제는 부모에게 중요한 사안이므로 앞으로 주말부부의 과제와 관련하여 좀더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또한 두 번째 순위로 나타난 '자녀역할 스트레스'는 한국의 전통적인 부모부양의식의 한 단면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핵가족화 등 많은 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의식에는 주말부부라는 한계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다는 자책이 깔려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성인아들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변화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의식구조는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최정혜, 1998)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 남편과 아내의 인식의 차이가 크게 드러난 것은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면과 연관하여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즉 자녀역할 스트레스에 있어 남편이 아내보다 더 높게 점수가 나타난 것은 부모에 대해 아들과 며느리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영역은 가족 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유일하게 통계적인 의의를 나타낸 결과여서 향후 '자녀역할'과 관련시킨 후속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은 5점 만점에 3.3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조금 높은 대처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전략으로는 '인지 재구조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있어 전체적으로 부부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영역별 대처전략에서 두 번째 순위로 나타난 것은 '역할분담', '관리활동', '정서적 지원','취미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 '인지 재구조화'가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맞벌이 부부의 대처전략에서 첫 번째 순위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전영자, 1997)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이는 연구대상인 주말부부의 경우 학력이 높은 교사나 전문직 직종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바람직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처전략은 '관리활동'과 '정서적 지원' 전략으로 이 두 가지는 모두 아내가 남편보다 높게 나타나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있어 아내가 남편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문제해결 시에 이런 면을 감안한 해결방안을 강구한다면 좀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부부의 연령, 맏이의 연령, 직업,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 부부가 만나는 주기, 결혼지속년수 등으로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의 연령이 30대일 때, 맏이의 연령이 어릴수록, 직업이 사무직일 때,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이 '3-5년'일 때, 부부가 만나는 주기가 '2주마다' 일 때, 결혼지속년수가 '6-9년' 일 때 가족 스트레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 영향변인에서 부부간 차이를 보인 변인은 '직업' 변인으로서 아내에게서만 영향변인으로 나타나, 아내의 가족 스트레스가 직업에 따라 달라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아내가 남편보다 직업환경에 따라 가족 스트레스를 다르게 지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개인변인은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로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 지각정도에 있어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 변인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종교와 주중 가족형태로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가 종교를 가질수록, 친정부모와 동거할수록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이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에 있어 부부간의 차이를 보면 남편은 종교 유무에 따라, 아내는 주중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두 변인의 영향력을 시사받았다. 그리고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영향을 주는 개인변인은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처전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있어서 개인변인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넷째, 주말부부의 가족 건강성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6점으로 높게 나타나 주말부부의 가족관계는 전반적으로 건강함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어은주외, 1996)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하위영역별로는 '가족원간의 유대'가 가장 높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가장 낮게 나타나 가족간에 가치관 공유영역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부부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서 주말부부의 가족 건강성은 남편과 아내가 비슷한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주말부부의 가족 건강성 정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주말부부의 교육수준, 종교 유무, 직업,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 부부가 만나는 주기, 결혼지속년수 등으로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의 가족 건강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부부가 만나는 주기가 짧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에 있어서는 '3-5년 사이'일 때(가장 낮음)를 제외하고는 주말부부의 지속기간이 짧을수록 가족 건강성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이 부인이나 양쪽 모두일 때 가족 건강성이 높게 나타나, 아내의 직업으로 인한 가정 부재가 가족의 건강성을 떨어뜨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아내의 부재가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편견을 바로잡아주는데 유용한 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 결혼지속년수는 5년이하일 때 가족 건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부간 차이를 보면 남편의 경우는 결혼지속년수가 영향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아내의 경우는 교육수준, 종교유무, 직업, 주말부부로 보낸 기간 등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으며, 공통변인은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 '부부가 만나는 주기'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말부부의 건강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 등이 모두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 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개인변인에 대한 부부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서, 부부 모두에게 중요한 개인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여섯째,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와 대처전략에 따른 가족 건강성 정도는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일수록, 대처전략이 높은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 및 대처전략 정도에 따라 가족 건강성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가족 건강성 연구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는 중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조사대상자인 주말부부들이 이미 전문 직종으로서 자신의 삶을 조절하고 잘 대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경향이 본 연구 대상자에 한해서 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경향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큰 규모의 후속연구들이 계속될 때 규명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가족 스트레스 영역 중에서 1, 2 순위로 나타난 '부모역할'과 '자녀역할'의 중요성은 한국가족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후속연구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처전략으로는 '인지적 재구조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일상적인 삶에서의 문제해결은 모든 주어진 상황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으므로 주말부부라는 어쩔 수 없는 상

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가능한 방법으로 잘 대처하여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주말부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족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서의 '인지적 재구조화' 전략은 바람직한 전략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에서 부부간에 차이를 내고 있는 '관리활동'과 '정서적 지원' 대처전략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후속연구를 계속하여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있어 남편과 아내의 차이점을 밝혀 부부관계를 활성화시키는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셋째,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몇 가지로 규명되었으나, 대처전략에 있어서의 영향변인은 매우 적게 나타났다. 주말부부의 대처전략에서는 오히려 개인변인이 모두 영향변인으로 나타나 중요성을 보여주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주말부부의 심리적 개인변인의 중요성을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가 뒤따른다면 가족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유용한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넷째, 주말부부의 가족 건강성 정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 주말부부라는 조건으로 인해 가족 건강성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견해는 우려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부가 같은 경향으로 나타나 가족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말부부는 가족 건강성이 아무래도 약할 것이라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

다섯째, 주말부부의 가족 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개인변인 모두가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나 향후 이들 변인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주말부부의 가족 건강성을 높여주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본다.

여섯째, 주말부부의 가족 건강성 정도는 가족 스트레스와 대처전략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주말부부의 가족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주말부부의 가족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대처전략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및 교육이 요구된다 하겠다.

## 【참고문헌】


공세권(1998). 사회변동과 가족의 분화, 1998년도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 1-11.

구혜령 (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신 · 권오남(1996).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8.

김명자(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29권 1호, 203-216.

김양호 · 김태현(1998). 맞벌이 가족 남성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1), 81-94.

김은경(1999). 맞벌이 주말부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4권 1호, 25-43.

김정옥(1995). 가족스트레스, 가족체계유형, 가족복지와의 관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3), 101-112.

김태현 · 박숙자(1992). 한국의 비동거 가족연구. **가족학논집**, 4, 45-74.

서혜영 · 이숙현(1999).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부모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257-280.

송말희(1990). 기혼 남 · 녀의 부부간 갈등 정도와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31-47.

양순미 · 유영주 · 정현숙(2001). 한국농촌의 건강가족 집단분류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31-47.

어은주 · 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81-94.

어은주 · 유영주(1997).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 연구 -자녀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69-285.

옥경희(1999). 맞벌이 주말부부의 부모역할 갈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45-66.

유영주(2000).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유영주(2001). 왜 건강가족 이어야 하는가. 한국가족학회 2001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9-22.

이기숙(1999). 맞벌이 주말가족의 성격분석을 위한 시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1-23.

이현주(1997). 부부의 자아분화 정도와 갈등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형실(2001). 기혼취업여성과 남성의 가족 및 직업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143-152.

장성자(2001). 21세기 여성의 역할과 여성정책 방향. 제54차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조강연. 1-6.

전영자 (1997).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심리적결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339-355.

정문자 · 이미리(2000). 취업주부의 직업 및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1),** 115-126.

최규련 · 서동인 · 조병은 · 신화용 · 김양희 (1995). **맞벌이 가족의 실증적 연구: 맞벌이 가정의 가족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편. 서울: 하우. 99-151.

최규련(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최선희(2001). 한국인의 가족 건강성 영역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학회 2001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7-69.

최연실(1996). 청소년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정혜(1998). 기혼자녀의 효 의식, 가족주의 및 부모 부양의식. **한국노년학회지,** 18(2), 47-63.

최혜경 · 노치영(1994). 기혼남녀의 부부간 문제해결 행동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62-272.

허봉렬(1996). 건강한 가족이란 어떠한 가족인가?. 제3회 가정의 날 기념행사. 한국건강가족 실천운동본부.

허봉렬(1998). 전국민 건강가족 실태조사. 연구성과 보고서. 한국 건강가족 실천운동본부.

허영숙 (1993). 주말에 남편을 만나는 맞벌이 여교사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arnett, R. C.(1994). Home-to-work spillover revisited: A study of full-time employed women in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647-656.

Beutell, N. J. & Greenhaus, J. H.(1983). Integration of home and non-home roles: Women's coping and conflict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68, 43-48.

Brigman, K. M. L., Schons, J., & Stinnett, N.(1986). Strengths of families in a society under stress: a study of strong family in Iraq. *Family Perspectives.*

Bunker, B. B., Zubek, J. M., Vanderslice, V. J., & Rice, R. W.(1992). Quality of life in dual-career families: Commuting versus single-residence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399-407.

Burr, W. R.(1983). Families under stress. In H. I. McCubbin, A. E. Cauble &J. M.

Byles, J., Boyle, C., & Offord, D. R.(1988). Ontario child health stud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general functioning subscale of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Family Process*, 27.

Cohen, S., & Will,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Crossman, D. K.(1984). Dual-career mothers and multiple role satisfaction: Self-esteem, mastery of enviroment and commitment.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Farrell, M. P., & Barnes, G. M.(1993). Family system and social support; A test of the effect of cohesion and daptability on the functioning of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119-132.

Gerstel, N., & Gross, H. E.(1984). *Commuter Marriage: A Study of work and famil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Gross, H. E.(1980). Dual-career couples who live apart: Two typ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3), 567-576.

Heckman, N. S., Bryson, R. & Bryson, J.(1977). Problems of professional couples: A context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323-330.

Kinnunen, U., Gerris, J., & Vermulst, A.(1996). Work experiences and family functioning among employed fathers with children of school age. *family Relations 45*, 449-455.

Kurdek, L. K.(1995). Predicting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from husbands' and wives' conflict resolution sty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1), 153-164.

Lavee, Y., & Olson, D. H.(1991). Family types and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786-798.

Lazarus, R. S.(1984). Patterns and adjustment and human effectnes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McCubbin, H. L., Joy, C., Cauble, A., Comeau, J., Patterson, J. M., & Needle R.(1980). Family stress and coping: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855-871.

McCubbin, H. I. & Patterson, J. M. (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ion. In H. I. McCubbin, M. B. Sussman & J. M. Patterson (eds). Social stress and the family: Advances and developments in family stress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Haworth Press.

Olson, D. H & Defrain, J.(1994). Marriage and the family: Diversity and strengths. Mayfield publishing Company.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arson, A., Muxen, M & Wilson, M. (1983).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

Rapoport, R. N. & Rapoport, R. (1978). Dual-career families: progress and prospects. Marriage and Family Review, 1, 1-12.

Schwartzberg, N. S. & Dytell, R. S.(1988). Family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In E. Goldsmith(ed.). Work and famil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 175-190.

Skinner, D. (1983). Dual-employed families: coping & adaption.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Stinnett, N.(1979). Strengthening families. *Family Perspective*, 13.

Tenbrunsel, A. E., Brett, J. M., Maoz, E., Stroh, L. K., & Reilly, A. H.(1995). Dynamic and static work-family relationship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3*, 233-246.

Winfield, F. E. (1985). Commuter marriage: Living together, apar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